

커뮤니케이션學의 접근방법과 爭點

秋 光 永*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전통적 연구의 비판과 대 |
| II. 신문학의 형성과정 | 안적 접근방법 |
| III. 전통적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대상과 그 방법론 | V.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쟁
점과 과제 |

I. 서 론

오늘날 새로운 통신기술(communications technology)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정보산업 혹은 미디어 산업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은 이제 초기의 저널리즘(Journalism) 중심의 성격을 점차 벗어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다루는 독립 사회과학 분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학문내적 쟁점들에 대한 견해 차이와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이견의 분출로 새로운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것들은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약간의 시간적 차이와 학문의 성격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헬로란(Halloran, 1981)의 지적처럼, 지난 20년 동안의 커뮤니케이션연구 분야에도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방법론·접근방식 등을 둘러싸고 활발한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라는 보편성 속의 특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현실 유관성 혹은 토착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아직 충분히 성숙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접

* 서울大 社會大, 新聞學

근방식의 소개에 머무르고 있는 감이 적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대상 분야와 그 가능성을 넓히려는 시도들로 판단되어질 수 있어 학계의 새로운 발전을 암시하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보는 뜻에서 전통적 커뮤니케이션학의 발전과정과 연구대상 그리고 방법론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들과 함께 대안적 접근방식들을 개관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학의 현위치를 조명하고 아울러 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진로와 방향 설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신문학의 형성과정

한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은 그것을 가르치는 학과의 명칭이 신문학과 혹은 신문방송학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문학과 혹은 신문방송학과라는 명칭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기자의 양성 또는 신문·방송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의 교육을 제일 차적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흔하며, 그것의 학문적 대상도 신문 혹은 신문과 방송을 포함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현대적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성립은 신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며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출현에 의해 학문적 관심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신문학 혹은 신문방송학으로 불리는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대상이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원에 따라 해석해 볼 때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 (organism)가 다른 유기체(들)과 지식·정보·의견·신념·감정 등을 공유 또는 공통화하는 행동”(차배근, 1976:18)으로 정의되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커뮤니케이션학의 중요한 대상 영역이긴 하나 결코 그 전부는 아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학(신문학)의 효시는 “어떤 주어진 경우에 쓰여질 모든 가능한 설득의 수단을 관찰 또는 발견”(Aristotle, 1954)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Rhetoric)이라 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학문으로서의 이론체계를 갖추게 된 수사학은 현대적 의미로 표현하면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또는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 후 중세·근세를 거쳐 현대까지 그 학문적 흐름을 이어왔다.

이러한 구어적 대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주로 연구하는 수사학의 발전과 별개로 17세기 무렵 근대신문의 발생 이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현대 커뮤니케이션학의 직접적 흐름이 되는 저널리즘 연구를 낳게 되었고, 이것은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각 대학들에 신문학과 창설되는 과정⁽¹⁾으로 정착 하며 독일에서는 신문학(Zeitungswissenschaft)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²⁾

미국에서 현대적 커뮤니케이션학의 성립은 1950년대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저널리즘학과, 수사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스피이치(Speech)학의 성숙에 의한 상위적 개념으로서의 독립된 학문분야의 발전이라 하겠다(차배근, 1976: 96). 이러한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주로 사회적 환경 요인이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발달 원인에 대해 라자스펠드(Lazarsfeld, 194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사회과학자는 그들 입장에서 사회적 행동의 객관적 지수를 구하려고 매스 미디어에 관심을 가졌었고,

둘째, 제 2의 길은 미국 실업계의 활동에서 파생하였다. 사업이 국가적인 광대한 규모로 발전했을 때, 사업가들은 자기의 고객을 자기의 공공관계상의 정책대상인 동시에 광고대상으로서 그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적어도 1억불 이상이 1년에 여기에 소비되었다. 사업체가 매스 미디어의 활동과 유효성에 관하여 유용한 지식의 모든 것을 수집하려고 한 것은 놀랄 바가 못 된다.

세째, 제 3의 길은 세계의 정치적 상황이라는 토양에서 발생한다. 오늘

(1) 최초의 독립된 신문학부(School of Journalism)는 1908년 미주리(Missouri) 대학에서 생긴다.

(2)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15년에는 미국 미주리 대학의 윌터 월리암즈, 독일의 카알 데스터(Karl d'Ester), 일본의 오노 히데오(小野秀雄) 등이 중심이 되어 「세계언론회의」(Press Congress of the World)를 창립한다.

날 중앙정부의 중대성은 어디에서든지 증대하고 있다. 파시스트 국가에서 는 독재자가 자국민을 틀 속에 잡아 둘 강력한 수단을 구했다. 더욱 강력 한 지도권을 중앙정부에 두게 된 민주주의적인 국가에 있어서도 정부는 국민의 협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추구했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은 늘어만 갔다.

라디오 등 새로운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세계의 정치적 상황 등에 기인한 이러한 동인들은 다른 사회과학 분야 학자들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를 촉진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초기의 커뮤니케이션학은 “학문의 십자로”와 같은 간학문적 성격 (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띠게 되었다.

정치학의 라스웰(H.D. Lasswell), 사회학의 라자스펠드, 실험심리학 분야의 레빈(K. Lewin), 사회심리학의 호브랜드(C.I. Hovland) 등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저작들을 통해 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 성립에 크게 기여한 학자들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슈람(Schramm, 1983)은 이들을 “4비조” 혹은 커뮤니케이션학의 설립자들(Founding Fathers)이라고 부른 바 있다. 물론 이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왔으며⁽³⁾,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1950년대에 들어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학이라는 독립된 학문분야가 정착하게 된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케이션학은 종래의 저널리즘의 성격을 벗어나고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에 대해 슈람은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① 비수량적 연구에서 수량적 연구경향으로, ② 인문주의적 연구에서 행동과학적 연구로, ③ 위대한 언론인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과정과 구조에 대한 연구로, 그리고 ④ 지역내적 연구에서 범세계적 언론과 언론제도에 관한 연구로 전향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Schramm, 1957).⁽⁴⁾

이후 커뮤니케이션학은 매스 미디어 효과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각과 문제의식, 방법론 등을 도입하여 행동

(3)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車培根(1976), pp. 98~122 참조.

(4)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는 R.B. Nixon, "Introduction", *Journalism Quarterly Cumulative Index*, Vols. 1~40 (1924~1963) 참조.

과학의 하나로서 그 위치를 굳혀 나갔다고 할 수 있다.

Ⅲ. 전통적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대상과 그 방법론

커뮤니케이션학(Communicatology 또는 Science of Communication)이란 전통적으로 ① 모든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② 과학적인 방법으로 ③ 기술(describe)하고 설명(explain)해서 그것(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편타당한 지식체계(a systematic body of knowledge) 즉 커뮤니케이션 이론(communication theory)을 정립함으로써 주어진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predict)나아가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control)하고자 하는 ④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an independent discipline)로 인정되고 있다(차배근, 1976: 134)

무릇 어떤 학문분야가 하나의 독립된 과학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고유의 연구대상(분야)과 이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 즉 이론이 있어야 하며, 그 연구대상을 탐구해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면 커뮤니케이션학은 금세기에 들어와서 성립을 보게 된 다분히 새로운 학문임에는 틀림없다. 주로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연구대상으로 인문주의적 연구방법을 사용해서 탐구하던 종래의 신문학이 라디오·텔레비전·영화 등 새로운 매스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그 연구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또한 여론·선전·광고·PR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 국제 커뮤니케이션 등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영역을 거기에다 추가하는 동시에 과학적 연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학은 독립된 학문분야를 형성해 왔다.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대상은 모든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며 다의적인 용어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며 서로 그 강조점이 다르다.

비근하게 댄스(Dance, 1970)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한 연구⁽⁵⁾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들에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적 구성요소로 다음의 15가지를 들고 있다.

(5)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보려면 F.E.X. Dance and Carl E. Larson, *The Function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6), Appendix A 참조.

- 1) Symbols/Verbal/Speech
- 2) Understanding
- 3) Interaction/Relationship/Social Process
- 4) Reduction of Uncertainty
- 5) Process
- 6) Transfer/Transmission/Interchange
- 7) Linking/Binding
- 8) Commonality
- 9) Channel/Carrier/Means/Route
- 10) Replicating Memories
- 11) Discriminative Response/Behavior Modifying Response
- 12) Stimuli
- 13) Intentional
- 14) Time/Situation
- 15) Power

이런 구성요소들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대략 분류해 보면 ① 구조적 관점 (structural view) ② 기능적 관점 (functional view) ③ 의도적 관점 (intentional view)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차배근, 1976: 22~25).

첫째, 구조적 관점이란 커뮤니케이션을 정보 (information) 또는 메시지 (message)의 단순한 “송수신과정”으로 보고 그 구조 자체 (송신자—메시지—수신자)에 비중을 두는 견해로, 이러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 또는 정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흐르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둘째, 기능적 관점이란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기호사용 행동 자체로 보고 그 기호화 및 해독과정 (encoding-decoding)에 중점을 두는 입장으로, 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본능적이고 비의도적 (unintentional) 행위로 보는데 특징이 있다.

세째, 의도적 관점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한 개인이 다른 인간에게 영향 (influence)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으로 본다. 이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말과 설득 (persuasion)이라는 말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차배근 교수는 이러한 견해들과 정의들을 종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유기체(사람·동물 등)들이 기호(sign)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하나의 단일한 정의를 찾으려는 시도는 리틀존(Littlejohn, 1983: 4~5)이 지적하듯이, 그 용어 뒤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탐구보다 덜 유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상존성(always present)과 복합성(complex)을 염두에 둔 체계적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연구에는 분류하는 학자들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갖기는 하나 구체적인 분야들이 존재한다.

커뮤니케이션학에 지금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형을 라스웰의 “누가(Who) 무엇을(Says What) 어떤 매체를 통하여(In Which Channel) 누구에게(To Whom) 어떤 효과를 가지고 전달하는가(With What Effect)”라는 모형(Lasswell, 1948: 37)이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중요 요소를 ① 전달자(source) ② 메시지(message) ③ 채널(channel) ④ 수용자(receiver) ⑤ 효과(effect) (S-M-C-R-E)로 구분하여 줌으로써 커뮤니케이션 과정 연구의 분야들을 나름대로 확정지어 주고 있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루벤(B. Ruben)과 니모(D. Nimmo)는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를 ① 정보체계분야(information system) ②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 ③ 매스 커뮤니케이션 ④ 조직 커뮤니케이션(organizational communication) ⑤ 문화권간(intercultural) 커뮤니케이션 ⑥ 정치 커뮤니케이션 ⑦ 교육 커뮤니케이션 ⑧ 보건 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 ⑨ 국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고 있다.⁽⁶⁾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대상을 다루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학의 전통적 연구 방법은 경험주의적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이었다. 과학적 방법이란 “주어진 자연현상 사이의 가정된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명제(hypothetical propositions)들을 체계적(systematic)이고 통제된 관찰(controlled observation)

(6) 이 분류는 ‘국제 커뮤니케이션협회’(IC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가 매년 발행하는 *Communication Yearbook*에서 사용하고 있다.

을 통하여 실증적 (empirical)이고 비판적 (critical)으로 검증하는 방법” (Kerlinger, 1966: 13)으로 정의되고 있고, 여기에서 “체계적”이고 “통제된 관찰”이라고 함은 그 연구과정이 질서정연하며 논리적이고 모든 필요없는 요인들을 엄격히 배제한 상태에서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그 연구결과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실증적”이고 “비판적”이라고 함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입장을 떠나서, 관찰된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비판·검증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과학적 방법의 요체는 경험적 검증(empirical verification), 즉 우리의 오관에 의하여 감지할 수 있는 감각자료(sense data)를 통한 사실확인이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앤더슨(Anderson, 1967: 6)은 다음의 6가지 원칙(rules)을 들고 있다. 즉 주어진 현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① 조작적 정의(operation definition)를 사용해야 하며, ② 특수한 사물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성(generality)에 입각하여야 되며, ③ 통제된 관찰(controlled observation) 방법을 사용하되 ④ 반복하여 관찰(repeated observation)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⑤ 실제와 부합(confirmations) 되도록 하여야 되며, ⑥ 설명 사이에는 합치성(consistency)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할 때 “과학으로서의 학문이란 우선 일차적으로 일반적(general)이고 이론적(theoretical)이어야 하며, 통제된 관찰에 기초를 둘 뿐만 아니라 예측적 성향(predictive orientation)이 강해야 한다. 과학적 학문이란 최대한으로 인과관계를 추구해야 하며 그 본질상 자연주의적(naturalistic)이고 결정론적(deterministic)인 동시에 가장 타당한 설명을 통해 어떤 이론적 폐쇄(closure)를 추구해야 한다”(박유봉 외, 1983: 14)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런 접근방법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는 그 기저를 관통하는 질서가 내재하며 따라서 자연법칙과 유사한 사회법칙이 존재하고 이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뒤르켕(Durkheim)적 실증주의(positivism)적인 접근방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접근방법이 영국과 유럽에서 지난 20여 년간 강력히 대두하게 된 것이다.

IV. 전통적 연구의 비판과 대안적 접근방법

미국에서 주로 발전된 전통적 경험 실증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우선 그것이 기업조직, 정부 등의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에 종속된 연구활동, 즉 정책과학(policy science) 또는 행정적 연구(administrative research)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의 저널리즘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된 재정적 지원자는 신문·방송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정부기관이었으며, 이를 연구기금 제공자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Weaver & Gray, 1980: 144).

따라서 헬로란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본질적으로 현대 산업 도시 사회의 운용에 필요한 경험적·계량적·정책적 정보의 수요에 대한 반응이 있으며 전체적 연구활동은 매스 미디어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주로 수행된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 유형의 연구, 예컨대 미디어의 수용자에 대한 효과 연구,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등, 그들의 정책적 필요에 부응하는 연구들만이 수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헬로란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연구가 완전결여 또는 소홀히 되어 왔던가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Halloran, 1981).

따라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권력·조직·통제에 관한 연구는 취급하지 않았고 구조적 문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매스 미디어는 다만 현대 사회적 맥락에서만 파악되어 왔고 다른 사회제도 혹은 조직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이유로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그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식적이며 내재적인 철학이나 목표는 찾아보기 힘들고 …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관련성은 무시되어 왔다”는 것이다(Halloran, 1981).

사실 이러한 비판은 비단 커뮤니케이션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지난 20여년간 유럽과 영국에서 발전해 온 사회과학 접근방법에 관한 소위 비판 이론들의 기본시각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과학의 전반적 흐름의 변화가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도 파급 수렴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든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시대적·공간적 제한성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 비판적 연구(critical studies)⁽⁷⁾는 비스키(Bisky, 1981)의 말처럼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촛점이 매스 미디어에 의하여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방법에 관한 탐구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오직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만, 그리고 사회이론이라는 틀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 연구는 서로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된 구조주의 기호학적 접근(Structuralistsemiotics), 영국 중심의 문화주의적 접근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세 흐름이 대표적이며 그의 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 School)의 영향하에 형성된 비판이론(critical theory), 해석학·현상학 등을 기반으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인문주의적 접근을 주장하는 흐름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이론의 제 분파들은 그들의 주된 분석대상과 개념, 이론적 분석틀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헬로란이 요약하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그들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적 과정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둘째 미디어 제도를 고립적이 아닌, 다른 제도와 함께 그리고 다른 사회제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에서 고찰하며 세째 연구를 구조·조직·전문화·사회화·참여 등의 관점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Halloran, 1981: 27).

지면의 제약으로 다음에서는 극히 개략적으로 구조주의 기호학, 정치경제학적 시각 및 문화주의적 접근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조주의 기호학(Structuralist Semiotics)은 알튀세르(L. Althusser), 바르뜨(Roland Barthes), 에코(Umberto Eco), 라깡(Jacques Lacan), 푸코(Michel Foucault) 등 많은 마르크시즘계열의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으로 비록 일사불란한 통합학파는 아니나 몇몇 기본적 가정들에 의한 공통

(7) Jay G. Blumle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in Europe: Some Origins and Prospects," in G.C. Wilhoit et al. (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Vol.2 (1981)에 미국과 대비되는 유럽 연구의 시대적·공간적 특성과 그에 따른 연구경향이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다.

적 견해를 갖고 있는 학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인문 사회과학이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달리 의미현상으로서의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기호(sign)의 의미 이해를 중시한다. 구조주의 기호학은 한마디로 언어를 사회이론의 재구성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언어와 구조란 두 현상을 최중요 관심대상으로 삼는다. 소쉬르(Saussure)의 언어학으로부터 연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구조주의 기호학은 언어자체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언어가 사회내에서 차지하는 뚜렷한 위치와 그 기능을 분석코자하며 언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담화(discourse)를 사회연구의 주제(topic)이자 동시에 그 자원(resource)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Lemert, 1977). 사회과학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관심은 하버마스(Habermas), 고프만(Goffman), 던칸(Duncan), 버거(Berger), 번슈틴(Bernstein) 등에 의해서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연구자들의 관심은 다분히 우발적이거나 부차적이었던 것에 반하여 구조주의 기호학은 언어 자체에 관한 본격적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는 “언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복잡성을 불구하고 언어 그 자체가 속성을 들어내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푸코(Foucault)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Lemert, 1977: 99). 구조주의에서 언어분석의 중요성은 그것이 전통적 인본주의(Homocentrism)를 탈피해 주어 인간을 객관적으로 분석 가능케 해 준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구조주의자들은 19세기의 해석학 역사주의 뿐 아니라 실존주의 그리고 마르크시즘과 연결되는 신역사주의 등을 모두 인간을 주체적(inner subjective)이며 문화적 의미를 통해 분석탐구하는 이른바 잠재적 형이상학(Cryptometaphysics)으로 비판하며 이들은 “인간행동을 선형적 원칙으로 부터 연역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인간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 인간을 숨기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푸코와 데리다(Derrida)는 “인간은 그 자체가 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 담화의 산물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며 잠재적 형이상학에서는 인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Lemert, 1977:100).

따라서 알튀세르를 비롯한 구조주의자들은 박명진교수(1986)에 의하면 인간의 주체성에 관해서 전통적 마르크시스트들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전통적 마르크시즘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게, 자율적

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간주하고 또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인정하며 그 결과로 구체화된 주체적 활동이 역사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경험은 인간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으로서 주어져 있는 실체화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감각을 통해 파악하는 행위로 보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튀세르는 주체나 경험 모두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며 주체란 의식적 자아(conscious self)로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습득과 함께 점차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주체의 형성은 인간이 자신과 타자, 자신과 주변환경, 자신과 자신의 표상 사이를 통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언어습득이 시작되는 유아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박명진, 1986).

그런데 언어란 차이체계 (Systeme de différence)이며 언어에 의해서 비로소 자신과 사물들 및 사물들 사이의 차별화가 가능하게 되며 이런 맥락에서 세상은 그 자체로서 구분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구분에 의하여 그 차이를 들어내게 되는데 이 차별화를 가능케 해 주는 것이 곧 언어란 것이다(박명진, 1986).

이런 구조주의 언어시각에서는 인간과학(human sciences)은 인간을 전적으로 인간적이고 문화적이며 의미생산(meaning-producing)을 하는 사회생활의 중심(Center of Social life)으로 이상화 시킬 수 없는 것이 되며 또한 담화가 보편적이란 사실이 인간은 물질과 관념, 그리고 자연과 문화의 양요소가 동시에 만들어 주는 탈중심화된 산물(decentered product)임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본다(Lemert, 1977: 100). 고로 담화는 자연적인 것(the natural)과 문화적인 (the cultural) 것 사이의 경계에서 작용하는 독특한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과학의 적절한 주제가 되며 또 이것은 사물의 질서(order of things) 속에서 탈중심화된 적절한 제자리에 인간을 위치 시켜준다는 것이다(Lemert, 1977).

사실 전통적 사회과학의 딜레마 중의 하나는 사회적 행동의 주체로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주제가 자율성이 없고 따라서 사회적 행동의 원천(source)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는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거나 그 반대의 경우 즉 자율성을 갖는 주체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 행동의 주 원천으로 과장 또는 “과사회화(oversocialized)” 해 왔던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구조

주의는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코자 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구조주의 모델은 주체가 사회적 구조를 사용하기는 하나 그들은 그 구조의 단순한 산물도 아니고 그 구조의 원천(원인)도 아니라고 봄으로써 이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레비스트라우스(Levi-Strauss)는 “주체는 머슴(bricoleur)으로서 그들의 행동은 사회구조란 ‘고물들(Junks)’을 단지 빌려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Lemert, 1977: 102).

이를 좀 더 명백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소쉬르의 언어(*la langue*)와 스피치(*la parole*)의 구분과 이의 사회적 연관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소쉬르에 의하면 구조주의의 주체는 말하는(speaking) 주체로서 그는 구조화된 패러다임으로부터 선택을 할 뿐이라고 한다. 즉 주체의 말(빠를)은 언어(랑그)가 제공하는 언어적 자료(용어, 규칙, 음운부호 등)를 발화(articulate)하는 것이며 언어는 전적으로 사회적인 사실(an entirely social fact)이고 이는 말(빠를)의 사용에 의해 존속되는 것이기는 하나 반대로 말(빠를)은 언어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복합적으로 구조화된 일련의 사회적 제도(Set of Social conventions)이란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비유하면 사회구조는 언어(*la langue*)와 같으며 주체의 행동(*la parole*)의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된다고 한다. 환연하면 구조주의 시각에서는 脱中 心化된 자아는 구조와 행위의 패러다임을 단순히 사용, 선택, 또는 차용하는 구조의 머슴이 될 뿐인 것이다(Lemert, 1977).

구조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구조의 분석에서 언어를 그 분석자료로 쓰며 있어 텍스트(text)란 개념을 사용한다. 텍스트란 에코(Eco)의 말처럼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행동에 개재되는 것으로서 문학적, 정치적, 역사적 기타부호 등 복잡다양한 부호들(a multiplicity of codes)로부터 나오는 요소의 산물로 파악된다. 또한 그것은 제반 사회적 노동의 표현(any expression of social labor)과 그 노동이 일어나는 사회관계(Social relations)의 양자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Lemert, 1977: 106). 따라서 에코에 의하면 어떠한 사회적 행동도 텍스트 이론으로 파악할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이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조주의자들은 “인간성과 사회는 커뮤니케이션 및 부호화의 관계가 성립할 때 존재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회에 관한 과학은 기호의 과학(Semiotics)을 써서 사회적 행동을 텍스트의 생산으로 해독하는 이론을 개발할 때 완전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고로 에코는 도구제작, 가족제도, 경제적 교환행위등 사회의 기본필수 활동들은 모두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본다. 왜냐면 이런 활동들은 모두 구조가 있고 구체적 부호와 연관된 (code-specific) 활동으로 볼 때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어떤 분석대상도, 예컨데 문학작품이거나 물질적 대상이거나 간에, 그것들을 특정 부호체계내에 위치시킬 때만 비로소 사회적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며 사회과학의 임무는 그 대상이 무엇이던지 바로 이러한 부호화과정 (Signifying process)를 설명하는 것이고 역으로는 어떤 현상도 그것이 부호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흥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구조주의 기호학이란 기호의 해독이란 방법을 통해 좁게는 한 개인 나아가서는 한 사회의 문화현상 및 이데올로기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현상을 밝혀 내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주의는 구조주의와 주요개념들을 공유하고 분석들이 흡사하여 이를 작위적으로 구분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이를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문화주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루카치(Lukacs), 그람시(Gramsci) 등 독일의 역사주의 경향과 프랑스 중심의 알튀세르, 폴랑자(Poulantzas), 라캉(Lacan) 등 후기구조주의의 두 사조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비판이론의 또 다른 유파로서, 이는 주로 영국에서 발전하여 홀(S.Hall), 윌리암스(R.Williams), 호가트(Hoggart) 등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강명구, 1986).

사회구성과정에 있어 매스 미디어의 역할을 보는 문화주의자들의 관점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부론자들의 접근은 사회제도로서의 매스 미디어가 사회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이들은 사회구성과정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지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구조와 중충적 (overdetermined)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며,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상부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지배의 도구가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언론은 단순히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체계, 문화제도, 종교, 교육제도 등과 같은 구조의 존재 조건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뉴스는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매체산업이 생산하는 상품으로 파악되지만

문화주의의 시각에서는 수용자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현실표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언론에 의해 제시되는 뉴스란 독점 자본주의의 모순적 구조 안에서 인간이 행위하고 느끼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주의 조류를 따르는 論者들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생산되는 문화를 특정 민족이나 여타 사회집단의 삶의 방식 전체"(a whole way of life)로 정의하고 구조주의자들이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 또는 왜곡된 현실의 표상으로 정의하는데 반해 이를 "의미와 가치의 체계"로 정의한다. 이들은 특히 그람시의 패권(hegemony)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이 주체적으로 개입하는 실천의 측면(사회변혁의 가능성)과 행위양식과 가치체계가 인간을 구조안의 존재로 제약한다는 이론적 측면을 통합하고 있다. 그람시에 의하면 패권이란 "지배계급 및 그들의 제부류 연합 또는 진영이 하위계급을 그들의 이익에 동의하도록 강제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계급들과 전체로서의 사회구조에 대해 '총체적인 사회적 권위'를 행사할 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패권은 지배계급이 "지배하는 동시에 지도할 때" 즉 선도할 때 작용하며 지배계급이 강제력을 가지는 동시에 그들의 계속적인 지배에 대한 하위계급의 동의를 능동적으로 구성하여 장악하고 획득할 때 작용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강제"와 "동의"의 결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Hall, 1979: 220).

그람시에 의하면 패권은 부분적으로는 하위계급이 상부구조에 포섭됨으로써 달성되지만 결정적으로 이 패권의 구조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때 언론의 중요성이 바로 문화제도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이란 것이다. 즉 언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이 하위계급 또는 피지배계급의 이익과 일치한다는 가치체계를 적극적으로 생산함으로서 사회적 접합체를 제공하며 전체 사회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알튀세르는 이와 비슷하게 이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과정을 국가이념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 ISA)란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생산체계로서의 자본주의는 "확대된 규모"로 생산조건들을 재생산하는 바, 이것은 "사회적 재생산" 즉 노동력과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포함하며 생산조건은 임금, 기술 그리고 적절한 관념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임금 없이는 노동력이 재생산될 수 없고 기술 없이는 노동력이 발전하고 "생산

력”으로 재생산될 수 없으며 적절한 관념은 “기존 질서의 규율에 대한 복종의 재생산, 즉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노동자의 복종의 재생산 내지는 착취와 억압을 행하는 자를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능력의 재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의 재생산은 문화체도, 교회, 미디어, 정치기구, “국가의 전체적 관리” 등을 요구하며 이러한 국가관리는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점차 다른 모든 ‘비생산적’ 기구들을 흡수하며, 알튀세르는 이 과정에 포함되는 기구들을(엄밀히 국가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데올로기 국가기구(ISA)라고 부른다.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 기구들은 국가의 경제적 기구와는 달리 이데올로기로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간명하지 않고 복잡하며 또한 단순하게 ‘지배적 관념’으로 구성되지 않고 지배계급과 종속계급의 관념상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제반 이데올로기의 논제의 장으로 구성되므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재생산해 내는 것은 ‘엄밀히 모순 가운데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재생산은 “계급투쟁의 목표일 뿐 아니라 그 무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Hall, 1979).⁽⁸⁾

한편 여러 사회계급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낸다는 것은 지배집단의 이익이 기층의 여러 사회계급의 이익과 일치되는 가치체계를 언론이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해제모니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기층의 계급집단들이 지배적 이념을 수동적으로만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 이념, 의미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자율성을 또한 의미한다는 데 있다. 즉 기층집단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수용을 거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배적 이념이란 수용자들이 매스 미디어의 메세지를 그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이를 내면화 할 경우라고 한다면 이들이 무조건 수동적인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주의자들은 이를 잔여(residual) 또는 저항적(oppositional) 이데올로기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의 중요성은 강명구(1986)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문화체국주의 시각에서 주변국 내부의 각 사회계급들은 지배적 이념을 담은 의례문화를 그들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취사선택을 할 수 있

(8) 문화주의에 관한 상론은 Hall(1979)

다는 이론적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며 문화종속의 원인 뿐 아니라 주변국 사회집단들이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 체계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적 (political-economy) 접근은 또 다른 마르크시즘 계열의 비판연구의 유파로서 셀러(H.I. Schiller), 스마이드(D. Smythe), 간햄(N. Garnham), 골딩(P. Golding), 머독(G. Murdock) 등의 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접근방식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고전적 마르크시즘의 논리를 기본적인 이론틀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경제활동과 문화생산이 이제 불가분한 것이 되어버린 오늘의 사회영역에서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공식 및 생산력의 개념규정에 대한 이론적 수정이 따라야 된다는 인식을 또한 깔고 있다 (Garnham, 1981: 84).

이들은前述한 기호학적 접근과 문화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문화와 매스 미디어에 대한 그동안의 분석은 “관념론”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는 비판아래 史的唯物論(historical materialism)의 입장으로 매스 미디어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펈다. 예컨데 간햄은 독점 자본주의내에서 매스 미디어의 핵심적 특징은 경제를 통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배의 수행이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산업의 일부로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언론의 경제적 관계 즉 문화생산과정 안에서 언론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파악한다. 이들은 후기 알튀세르-라캉 학파가 주장하고 있는 주체성의 문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계급이나 자본축적의 문제보다 중요성이 덜한 것이다. 알튀세르 또 흘 등의 문화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매스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라는 개념 즉 매스 미디어가 단순히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라는 인식 또한 매스미디어의 적절한 분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각은 문화적 생산과 재생산을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일반적 논리에 귀속시킬 때의 특수한 결과나 구체적 역사 시점에서 경제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제차원들간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관계가 지닌 특수성을 모두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머독과 골딩은 이런 관점이 이데올로기 과정에 대한 서술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왜 또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이

테올로기 기구로서 기능하는 방식은 매스 미디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의 대규모영리기업으로서의 지위와 체계적으로 연결될 때 그리고 이러한 연결들이 역사적으로 탐구될 때 비로소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Murdock & Golding, 1979: 98).

이들의 주장은 밀하자면 상부구조와 문화는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며 더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잉여만이 여타의 인간활동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첫째 물질적 잉여의 창출과 분배의 양식, 둘째 상부구조 내에서의 이러한 물질적 잉여의 할당사이의 관계”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물질적 생산이 결정적 요인이며 따라서 상부구조는 그러한 의미에서 물질적 생산의 토대에 의존하고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들은 매스 미디어를 이데올로기 기구로만 보는 관점에서 관심을 옮겨 상품생산과 교환을 통한 잉여가치 창출자로서의 직접적인 경제적 역할 및 광고를 통한 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적 실체로 파악 분석해야 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Garnham, 1981).

이들 정치경제학적 접근론자들이 밝혀낸 언론산업의 집중화와 독점화의 결과는 첫째 수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범위가, 예컨대 TV의 경우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만을 방영하는 등, 이윤극대화의 목적 때문에 지극히 한정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사회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소규모 언론(small media)들이 독점시장에서 배제되고 만다는 것으로서 이는 독점시장에서 제한된 자본으로 대규모 언론기업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강명구, 1986).

어떻든 매스 미디어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독점 자본주의의 시장논리가 어떻게 문화산업으로서의 미디어 기업의 구조와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고 그 분석틀로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사적유물론에 다분히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다.⁽⁹⁾

비판적연구는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실증적 전통과 구별되며 비판적 연구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된 문제제기 중의 하나는 학문에 있어서 가치(value)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들

(9)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상세한 내용은 Garnham(1981) 참조.

은 전통적 연구에서 주장하는 가치 중립성(value-neutrality)을 부정하며 가치내포적 이론의 형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매스 미디어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틀을 사용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매스 미디어는 순전히 자본관계의 형태분류에 불과”(방정배, 1985 논문)하다고 본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매스 미디어의 소유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 혹은 매스미디어가 산출하는 생산물의 이데올로기와 문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등의 차이에 따라 정치경제학적 연구, 문화주의적 연구 등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실증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립하는 연구경향이 해석학(Hermeneutics) 현상학(Phenomenology)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주의적 접근방식(humanistic approach)이다. 이들은 주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관념론적 해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의 분출과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 등으로 인해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또 인간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 영역에서 많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나타난 갈등과 대립은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차원의 토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Journal of Communication) 1983년 여름호는 이것을 “학계의 소란”⁽¹⁰⁾이란 제목의 책으로 모아놓고 있는 설정이다.

결국 커뮤니케이션학의 흐름은 대략 1) 해석학·현상학 등을 기반으로 관념론적 접근을 하는 인문주의적 연구경향, 2) 마르크스주의적 접근방식을 수용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들(구조주의 기호학, 문화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등), 3)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험적·실증적 연구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간의 대립과 관심 영역의 접근·수용 등이 특징적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학 자체는 전통적인 경험주의에 이어 인문주의의 부

(10) 『Ferment in the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Summer 1983.

활에 따른 인간의 본질적·핵심적 행위로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대두, 문화·문화산업·이데올로기라는 문제의식에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접근 등으로 그 학문적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V.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쟁점과 과제

전술한 커뮤니케이션학 방법론을 둘러싼 세계적 논의는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에도 그대로 축소판의 형식으로 반영 제기되고 있다.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한국의 신문학 또는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초기의 규범적 저널리즘 연구에서 크게 성장 확대되어 현재는 미국식 경험주의의, 독일의 공시학(Publizistikwissenschaft), 구조주의, 문화주의, 정치경제학적 연구자를 그 내부에 공존시키고 있다. 이중 미국식의 실증적 경험주의적 연구 방법은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동안 도입이 완료되었고 현재 속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굳혀져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복합적 성격에 비추어 새로운 연구방법과 시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위 비판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바로 그동안의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이 겪어 온 발전과 변모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수렴하여 학문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의 한국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라 할 것이다.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쟁점은 첫째 전통적 경험주의 연구방법에 대한 비판과 정책연구 또는 행정적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종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둘째 학문 또는 방법론의 토착화(indigenization)에 관한 논의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박명진 교수에 의해 가장 뚜렷이 제기되고 있다. 박교수는 구조주의 기호학의 입장에서 기존연구 및 이론들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나타내면서, 특히 계량적 내용분석 방법에 대한 비판(박명진, 1981)에서 내용분석의 실증주의적 시각이 “대중문화 산물과 사회와의 관계

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수량화와 현시적 요소만의 취급”에 의해 대중문화 산물의 이데올로기화 작업이라는 실제적 모순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러므로 “내용분석은 과학적 분석 방법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교수는(1986) 또 다른 글에서 경험주의적 커뮤니케이션 모형들은 그것들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 역사성을 지닌 주체로서의 송신자—수신자를 관념적인 주체로 대치”함으로써 사회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분석을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으로부터 역사성을 제거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교수는 역사공통적 인과의 원리가 역사적 특수성이나 문화적 독창성을 포착할 수 없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편적 원리 혹은 법칙의 추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기존이론의 역사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에 대해 “거기에는 사회의 문제들을 주어진 구조내에서 해소 가능한 대립의 관계로 보느냐, 혹은 구조적 변혁이 불가피한 모순의 관계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 시각의 차이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이론의 문제를 속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념들이 필요해” 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量的 分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구의 보조역 할로서 주어진 자료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이 경우에도 “수량화의 가치는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추출된 것이라 해도, 가짜 대상이라는 불완전한 터전 위에서 작용하는 순간부터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분석에 의해 인식론적으로 완벽히 콘트롤된 대상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박명진, 1981: 113). 말하자면 미국적 경험주의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이다.

방정배 교수(1981)는 프랑크프르트 학파의 비판적 이성과 변증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실증적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과학이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며 그러므로 이론의 전제조건이나 실제 관계도 사회적으로 중재(Vermiltelt)된다”고 보아 “사회적 산물로서 가치 내포적 즉 계급의식의 형성을 목표”(방정배, 1985 논문: 246)로 하고 있는 비판이론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비판이론의 미디어이론 관점은 첫째, 매스 미디어를 학문적 논의의 논리

적 출발점으로 잡지 않고 그것을 총체적 연구관찰에서 결코 고립시키지 않는 반면, 오히려 정치경제적(유물론적) 사회이론의 맥락에서 포착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이론적 관점은 라스웰 포멜에서 보여지는 경험적 커뮤니케이션학의 분류적 방법을 극복하고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체계들(커뮤니케이션·미디어·수용자 등)의 기계적 정보처리 메카니즘에 집착하여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인간을 정보입출의 부품시하려는 기능이론적 패러다임을 넘어서고 있다. 세째, 이들 이론가들의 공통적 관점은 이론 자체를 사회적 실제와 분리하지 않고 이론이 그 대상인 사회실제의 일부를 형성하도록 사회적 실제와 이론의 접합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한국의 신문학이 첫째 이론이 마치 실제와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존재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둘째 이론의 유형에 대한 분류없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이론만을 이론모범으로 수용한 결과 자연과학적 이론과 사회과학적 이론을 혼동하고 있고, 세째, 학문추구의 근본적 목적으로서의 진리·진실의 문제에 있어 자연적이고 형식적 진리와 사회적 진리에 대한 구분을 못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또한 네째 역사변증법적 이론에 대한 몰이해와 고정불변하는 기계적 사고방식에 의한 이론접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섯째 객관적 자연세계와의 신진대사 메카니즘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적 활동인 노동과, 상호작용적 혹은 규범적 사회와의 신진대사 메카니즘으로서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와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조망이나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방정배, 1985 책: 48~50).

그의 비판은 결국 경험주의 연구가 그 자체의 방법론적 약점으로 인하여 주로 사회 전체적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기타 사회 제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소홀해 웃음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방법론적 또는 학문적 토착화에 대한 관심은 서구 주로 미국의 학문을 수입해 온 제3세계 지식인들에게 공통된 문제의식이며 그들의 지적 성숙에 따른 자성에서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에도 이런 자성론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李

(11) *Ibid.*, pp. 243~244.

相回(1983: 234) 교수는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연구가 “미국 신문학의 아류에 불과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고, 오진환(1985) 교수는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진에 의해 외국 용어와 기술이 여과과정이나 한국 현실에의 적용과정 없이 수입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 자신의 언론가적 실천과 교육 체계가 탐구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정배(1985 책) 교수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후진국들이 모두 겪고 있는 “이론 식민지화”로 비유하면서 이를 미국식 경험 실증주의와 구조기능주의적 방법의 절대 경향에 의해서 야기된 결과로 보고, “과학 이데올로기를 믿고 송상하는 과학신도”들이 되어버린 후진국의 비참함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지적에서 볼 때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의 학문적 토착화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 방안의 제시에 이르지 못한 소박한 문제 제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경험주의에 대한 비판과 종체적 접근을 요구하는 비판적 연구 시각의 도입 요구는 다분히 논의의 핵심으로 활발히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 커뮤니케이션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가설 연역적인 미국식 경험 실증주의가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오랫동안 군림해 온 이론적 편중증(theoretical monomania)에 시달려 왔다고 하겠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증세”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극복하여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 복수주의(pluralism)를 구현해야 하는가가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시급한 과제의 하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이론편중증을 다분히 갖고 있어 사회현실을 기술하는데 있어 원자론적(atomistic) 또는 종체적 시각이거나 아니면 연역적 방법 또는 변증법적 방법 중 어느 하나만을 따르는 이분법적 사고 또는 배타성(exclusiveness)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해머링크(Hamelinck, 1983)의 지적처럼 현실 이해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 이해의 정확도와 분석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각이 지배적이어서는 곤란하고 다변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적 복수주의 또는 절충주의(electicism)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커뮤니케이션학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적 경험주의는 이런 맥락에서 시각 확대의 필요성과 대안적 시각의 수용에 더욱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 경험주의자인 로

저스(Rogers, 1982)의 지적은 시사적이다.

- 1) 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자들은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본질을 무시할 수 없다. 누가 이러한 체계를 소유하고 통제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작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맥락(context)의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효과연구에 도움을 준다.
- 2) 그들이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윤리적 측면은, 이러한 측면이 그들의 통상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연구될 수 없다 하더라도, 경험적 학자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 3) 경험적 학자들은 양적인 연구방법에 주로 의존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인 방법을 더욱 자주 사용해야 한다. 방법의 선택은 습관이나 관습이 아니라 연구상황(그 연구가 연구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든, 검증할 가설을 명시하는 것이든, 혹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든, 연구의 객관성과 같은 것)에 의존해야 한다. 복합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접근하는 것이 어떤 단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항상 더욱 강력하다.
- 4)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인식하는데 있어 더욱 폭넓은 전망을 가져야 한다. ①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진 연구문제들은 미국 미디어 체계의 문화 제약적 탐구(culture-bound inquiries)를 넘어 강조되어야 한다. ②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시작된 이래 비판적 학자들이 인식한 것처럼,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로저스의 지적은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의 상보성을 인정할 때 더욱 생산적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유일상(1985) 교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분석,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 표현에 있어서 진리·선악·미우의 가치론적 영역을 탐색”해야 하므로 분석적·사변적 연구방법과 계량적·실증적 연구방법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방법론적 다변화를 통한 연구 시각의 확대가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제의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한편 경험주의가 편중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비슷한 논리에서 많은 비판 연구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발적 또는 반작용적(reactive) 연구” 태도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을 통한 실질적 공헌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비판적 연구는 그 분석들의 논리적 강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험주의적 연구 즉 행정적 연구에 대한 반발로서 대두되었고 협존 구조 또는 기존 체제에 대한 반작용적 색채가 짙어 그것이 목표로 하는 사회 문제의 분석에는 오히려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멜로디와 만셀(Melody & Mansell, 1983)에 의하면 비판 연구는 행정적 연구의 제한점과 그것이 기존 체제의 유지를 정당화해 주는 기반 마련에 동원되고 오용되어 온 사례를 밝히는데만 주력해 왔고 아울러 협존 구조에 대한 반발에서 기존 사회제도의 약점과 실패를 밝히는 일에 치중해 온 결과 자체적으로는 연구 설계의 엄밀성부족, 중요 경험적 정보의 무시로 인한 표면적 분석에 그쳐 왔거나 “불분명한 사회변혁(undefined change)”을 주장하는 맹목적 협신(commitment)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적은 어떤 기준이론이라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 어떠한 학파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반발적인 경우에는 성취하는 바가 적다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비판 연구의 반발적 성격은 분석의 촛점을 흐리고 그것을 나이브한 관념론(naive idealism)의 수준에 자칫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 연구는 원래의 목표인 사회구조의 분석에 충실해야 하며 엄밀한 연구 성과의 축적, 즉 구체적 지식의 축적이 가능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의 비판연구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사실 한국의 비판연구 경향도 본격적인 한국 미디어 또는 커뮤니케이션 제도의 구조적, 총체적 분석이나 연구 성과의 축적을 이루어 온 것이라기 보다 아직은 이론의 소개와 경험주의에 대한 반작용적 고발과 성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비판 연구 이론의 정착과 학계에의 공헌을 위하여는 엄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시급히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때 비로소 한 차원 높은 학문적 지양이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조명해 보자면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분석 시각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제도 및 구조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활성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천하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여타사회과학 분야, 예컨대 경제학·정치학·사회학·인류학 등에 비

추어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분석이 대단히 부족해 왔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경험주의적 연구자들은 보편성(Universality)의 추구라는 입장에서 기존 서구 이론의 검증 내지 재현(replication) 연구의 수준에서 땀돌아 왔고 우리의 미디어 제도, 구조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무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경험론자들도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영역을 넓혀 더 큰 사회적 이슈인 커뮤니케이션제도, 정책,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이슈들에 관한 연구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멜로디와 만셀이 지적하는 것처럼 “카멜레온 같은 변색”이 아니라 그들의 연구 역량의 확대일 것이다.

또한 비판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전술한 반발적 연구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귀납적 논리의 강력성(inductive strength)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미디어 제도 및 구조 등에 관한 실질적 연구의 축적이 필요 한 것이다. 대개의 이론이 그러하지만 비판 연구는 특히 역사 귀납적 논리에 주로 입각하고 있다. 즉 특정 사회 또는 국가의 미디어 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분석 대상이 되는 사회 또는 사례의 수가 증가할 수록 그 논리적 강력성은 증가하는 것이고 일반화의 타당성은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한국의 미디어 제도와 구조적 특성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귀납을 위한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하는 귀중한 작업이 될 것이며 아울러 이론 자체의 현실 부합성 또는 유관적 합성(relevancy)을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분석에 더욱 치중해야 하는 것은 학문의 토착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다. 학문적 토착화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독특한 우리의 메타(meta) 방법론 또는 분석 시각을 개발하는 일이든 소박하게 기존 제 이론의 분석틀 속에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작업이든 그것은 우리의 현상에 관한 깊은 고찰에 바탕해야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편재적(ubiquitous) 현상이며,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universal)인 법칙이 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화 한정적(culture specific)인 현상인가 하는 기본적 의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철학,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식과 양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제

도에 관한 체계적 분석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커뮤니케이션 역사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런 맥락의 연구는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거의 부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율곡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사랑방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분석한 이상희(1980), 이경자 교수 등의 연구는 학계의 관심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연구들이 방대하게 집적될 때 우리는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에 관한 동서양의 차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독특한 분석틀의 필요성과 그것의 개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 것에 관한 더욱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지난 20여년 동안 급속히 발전해 온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은 이제 전통적 경험주의 뿐만 아니라 구조주의 등 비판적 연구 시작과 인문주의 등의 다양한 방법론적 유파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방법론적 논의는 이런 의미에서 학문적 성숙을 위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계의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법론의 편중증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시각의 확대와 연구 역량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현상 및 제도 등에 관한 총체적이며 실질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이 기본적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학문적 토착화의 수준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특정한 방법론에의 집착은 이 현상의 포괄적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방법론은 연구대상에 따라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역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면 방법론적 융통성은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행위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현상뿐 아니라 사회·문화·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求明姜

1986 “문화체국주의론의 몇 가지 문제” 한국 언론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朴有鳳 · 徐正宇 · 車培根 · 韓泰烈

1983 「新聞學 理論」, 서울 : 박영사.

朴明珍

1981 “構造主義 관점에서 본 내용분석 방법(1)”, 「仁石 박유봉 박사 화갑기념논총」, 서울 : 전예원.

1986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역사성의 문제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학보 23.

方廷培

1981 “사회연구 방법론과 비판 이론적 신문학 연구방법” 신문학보 14.

1985 “매스컴과 비판 커뮤니케이션 이론” 현대사회 19.

1985 「自主的 말길 理論：言路構造變動의 辨證法」, 서울 : 나남.

柳一相

1985 “커뮤니케이션 效果의 認識方法論 小考” 신문학보 19.

李相回

1983 「권력과 언론」, 서울 : 정우사.

李相禕

1980 “이율곡의 커뮤니케이션 思想”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학보 17

1983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서울 : 한길사.

車培根

1976 「커뮤니케이션학 개론(上)」, 서울 : 세영사.

Oh, Jin Hwan

1985 “Foreign Influence on Korean Journalism Education”, 신문학보 20, 제 4 차
韓美커뮤니케이션 학술발표회 論文集.

Anderson, Barry F.

1967 *The Psychology Experiment*, Belmont: Wadsworth.

Aristotle

1954 *Rhetoric*, translated by W. Rhy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Bisky, L.

1976 “Mass Communication Research: State of the Art”, Halloran (1981)에서
재인용.

Blumler, Jay G.

1981 “Mass Communication Research in Europe: Some Origins and Prospects”
in G.C.Wilhoit et al. (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Vol.2.

Dance, Frank E.X.

1970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0.

Dance, Frank E.X. and Carl E. Larson

1976 *The Function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Garnham, Nicholas

- 1981 "Contribution to a Political Economy of Mass Communication", 李相禧
(1983), pp. 83~122.
- Hall, Stuart
1979 "Culture, the Media and 'Ideological Effect'", 李相禧(1983), pp. 195~239.
- Halloran, James D.
1981 "The Context of Mass Communication Research.", 李相禧(1983), pp. 17~
60.
- Hamelink, Cees J.
1983 "Emancipation or Domestication: Toward a Utopian Science of Communi-
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33 (3), pp. 74~79.
- Kerlinger, Fred N.
1966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Lasswell, Harold D.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Lyman Bryson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New York: Harper & Brothers.
- Lazarsfeld, Paul F. and G. Knupfer
1945 "Communication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L. Linton (ed.),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 Lemert, Charles
1977 "Structuralist Semiotics and the Decentering of Sociology", Scott G.
McNall (e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Sociology*,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96~112.
- Littlejohn, Stephen W.
1983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2nd ed.), California: Wadsworth.
- Melody, William H. and Robin E. Mansell
1983 "The Debate over Critical vs. Administrative Research: Circularity or
Change",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pp. 103~116.
- Nixon, Raymond B.
1963 "Introduction", *Journalism Quarterly Cumulative Index*, vol.1~40 (1924~
1963).
- Murdock, G. and P. Golding
1979 "Ideology and the Mass Media: the Question of Determination", Garnham
(1981)에서 재인용.
- Rogers, E.M.
1982 "The Empirical and Critical Schools of Communication Research", Michael
Burgoon (ed.), *Communication Yearbook* 5,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 pp. 125-144.
- Schramm, Wilber
1957 "Twenty Years of Journalism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21(1)

- 1983 "The Unique Perspective of Communication: A Retrospective View",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pp. 6~17.
- Weaver, D.H. and R.G. Gray
1980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G.C. Wilhoit et al. (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vol.1, California: Sage.